



Meritz 통신서비스 Week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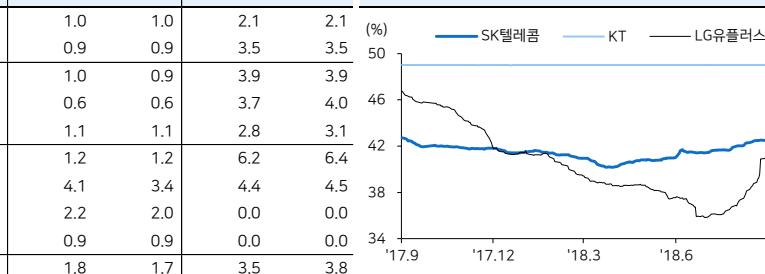
통신/미디어
Analyst 정지수
02. 6098-6681
jisoo.jeong@meritz.co.kr

2018.9.10

1 주가 현황

	수익률(%)				P/E(x)		P/B(x)		배당수익률(%)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
	1W	1M	3M	6M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KOSPI	-1.8	-0.1	-6.9	-7.2	9.0	9.0	1.0	1.0	2.1	2.1	
통신업종	0.2	2.2	11.8	15.1	7.9	7.9	0.9	0.9	3.5	3.5	
SK텔레콤	0.4	2.5	14.6	12.8	6.6	6.8	1.0	0.9	3.9	3.9	
KT	0.2	-0.2	3.9	4.5	10.6	10.3	0.6	0.6	3.7	4.0	
LG유플러스	-0.3	1.0	18.1	26.2	12.3	11.5	1.1	1.1	2.8	3.1	
AT&T	0.5	-1.1	-5.1	-13.3	9.1	8.8	1.2	1.2	6.2	6.4	
Verizon	-1.4	1.9	9.8	10.2	11.6	11.4	4.1	3.4	4.4	4.5	
T-Mobile	-2.5	-0.9	11.4	-1.3	19.8	16.3	2.2	2.0	0.0	0.0	
Sprint	-2.9	-2.1	15.1	12.3	30.7	743.8	0.9	0.9	0.0	0.0	
NTT Docomo	-1.2	-5.5	0.5	5.2	14.6	14.4	1.8	1.7	3.5	3.8	
KDDI	-0.5	-6.5	-2.6	9.8	12.4	11.3	1.9	1.7	3.1	3.4	
Softbank	-3.5	-5.2	24.1	15.6	10.0	14.2	2.1	1.9	0.4	0.4	
China Mobile	2.5	6.1	5.8	4.8	11.7	11.5	1.3	1.2	4.2	4.3	
China Unicom	1.2	-3.9	-10.5	-5.1	28.5	18.1	0.8	0.7	1.4	2.2	
China Telecom	7.6	10.6	7.3	15.1	13.9	12.8	0.8	0.8	3.0	3.2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SKT 42.4% (-0.1%p WoW, +0.4%p MoM)
KT 49.0% (Flat WoW, Flat MoM)
LGU+ 41.2% (+0.3%p WoW, +3.9%p MoM)
SK텔레콤 외국인 지분율 소폭 하락
LG유플러스 외국인 지분 유입 지속

2 업종 코멘트

전주 동향

9월 첫째주 통신업종 주가지수는 KOSPI 대비 +2.0%p 수익률을 기록하며 Outperform 테크 섹터를 포함한 전반적인 시장 부진 속에 5G 관련 통신장비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지속 한편, 중국은 2, 3위 통신 사업자 합병 이슈가 부각되며 China Unicom, China Telecom 상승 국내 기관은 통신 3사 순매수, 외국인은 SK텔레콤 순매도 및 LG유플러스 순매수

금주 전망

금주는 9월 12일(수)~14일(금) KT와 SK텔레콤이 MWC 아메리카 2018 참가 예정 국내외 통신사업자들의 5G 기술 및 어플리케이션 전시 등 5G 관련 협력 확대 예상 통신장비 업체 등 5G 수혜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증대 요인이 지속될 전망 한편, 통신서비스는 단기 주가 상승폭이 컼던 LGU+ 보다 SK텔레콤과 KT로 투자자 관심 이동

★ 통신업종 캘린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2	3 MSCI 정기 변경 시행일	4	5	6	7	8
9	10	11	12 MWC 아메리카 2018 개막	13	14 MWC 아메리카 2018 폐막	15

3 주간 뉴스

▶ 5G 상용화, '2019년 3월→2018년 12월'…정부·통신사, 입장은?

(디지털데일리)

-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한국 5G 이동통신 세계 최초 상용화 선언이 오는 12월로 앞당겨질 예정
- KT는 6일 '5G 오픈랩'에서 오는 12월에 5G 상용화 전파를 내보낼 것이라고 공언
- 다만, 12월에 상용화하더라도 선언적 의미에 그칠 전망이며, 서울 일부 지역에서만 5G 사용 가능
⇒ 버라이즌이 11월 상용화를 발표하는 등, 해외 이동사에 '5G 최초'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 작용
⇒ 12월 서비스 단말은 휴대폰이 아닌 공유기로, 휴대폰 단말 이용 시점은 내년 상반기 예상

▶ 5G 시대 망중립성 '완화해야' vs '시기상조'

(ZDNet Korea)

- 4일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망중립성 세미나에서 통신사 층 입장과 CP의 입장 대립
- 망중립성 찬성 층은 CP 망 이용 부담 높으면 차세대 서비스 주도 기회 놓칠 수 있다는 의견 제시
- 반면, 반대 층은 CP가 망 이용 대가를 부담하면 요금 부담이 완화되고, 트래픽이 늘어난다는 의견
⇒ 최근 정부는 망중립성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제로레이팅 및 관리형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방향
⇒ 한편, 미국은 뉴욕 등 28개 도시가 망중립성 폐기에 반대하는 청원을 제출하는 등 논란 재점화

▶ 中 2~3위 통신사 5G 개발 위한 합병설…양사는 부인

(전자신문)

- 블룸버그는 중국 지도자가 5G를 앞두고 차이나유니콤, 차이텔레콤 합병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 왕자오주 차이나유니콤 이사장은 "합병과 관련, 감독 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설명
- 중국은 통신기술을 산업 육성 정책인 '중국제조 2025'에 포함, 2020년까지 5G 상용화 계획 수립
⇒ 양사는 합병 추진설을 부인했지만 양사 합병은 국가발전전략위원회 등 당·정 상충부가 결정
⇒ 5G 상용화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 미국에서도 티모바일과 스프린트 합병 논의 중

▶ 구글·페북·넷플릭스…역차별해소 법안 발의

(Digital Times)

- 4일 변재원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구글 등 해외 IT기업을 국내 법제로 편입시키는 법안 발의
- 서버설치 의무화, OTT의 등록 및 신고 절차 마련, 방송발전기금 납부 의무 부여 등의 내용 포함
- 변의원은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인터넷 생태계를 위한 기여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비판
⇒ 해외 OTT에 대한 규제 강화와 함께 통신사들의 OTT 진출로 국내 OTT 시장 경쟁 가속화 전망
- ⇒ 한편, 페이스북이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청구에 대한 2차 심리가 진행되며 망사용료 논란 지속

▶ 통신사 OTT 경쟁 '옥수수'가 앞섰다

(전자신문)

- 옥수수 MAU는 7월 313만명으로 국내 3위, 1위 유튜브(2,466만명), 2위 네이버TV(323만명)
- 이통 시장 1위 SK텔레콤 효과와 함께 '독자 OTT 브랜드를 키우겠다'는 경영진의 의지에서 비롯
- SKB는 매년 50여편씩 누적 120편 이상 자체 콘텐츠 제작. 올해는 작년 대비 투자액 3배 증가
⇒ SK텔레콤이 옥수수 분할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는 등 지속적으로 OTT 육성 의지를 표출
- ⇒ 자체 콘텐츠와 더불어 프로야구 데이터 제공, 굿즈 출시 등 다양한 방향으로 사업 확장 진행 중

▶ SKT-KT, 'MWC아메리카2018' 참가…5G '화두'

(디지털데일리)

- SK텔레콤과 KT는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MWC아메리카2018'에 참석한다고 발표
- 행사 주제는 '5G 무선통신'이며, SKT 박정호 대표, KT 황창규 대표는 11일 GSMA 이사회 참가
- KT는 GSMA 공동전시관 '이노베이션시티'에 동참하여, 5G 라이프스타일 등을 전시할 예정
- ⇒ LG유플러스는 행사 주최 층인 GSMA이사회 멤버가 아니며, 개별 접촉으로 내실을 다지는 전략
- ⇒ 이번 행사를 통해 통신사 간 기술 협력 증진, 5G에 대한 투자자 관심 증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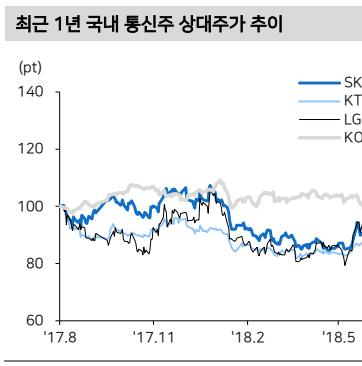
주요 지표

(십억달러)	종가 (통화)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BITDA		EV/EBITDA (배)		ROE (%)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한국	SK텔레콤	263,500	18.9	15.1	15.4	1.2	1.3	2.8	2.7	4.1	4.2	5.6	5.5	16.7	14.0
	KT	28,950	6.7	20.8	21.1	1.2	1.2	0.6	0.7	4.2	4.3	2.6	2.6	5.9	5.7
	LG유플러스	15,650	6.1	10.9	11.2	0.8	0.8	0.5	0.5	2.2	2.3	3.7	3.6	9.9	9.7
미국	AT&T	32.1	233.3	173.7	185.7	33.6	37.8	23.5	26.0	56.0	60.6	7.3	6.8	14.3	15.5
	Verizon	54.0	223.1	130.7	131.9	29.5	31.1	19.1	20.1	47.4	48.8	7.1	6.9	38.7	33.1
	T-Mobile	64.4	54.6	43.0	45.3	5.3	5.9	2.7	3.3	12.0	12.9	7.1	6.6	12.9	12.2
	Sprint	6.0	24.2	32.4	32.9	2.6	2.4	5.5	0.0	11.1	12.4	5.1	4.6	14.1	0.1
일본	NTT Docomo	2,851	97.1	44.2	43.6	9.1	9.1	6.7	6.4	13.9	13.9	7.1	6.9	12.6	12.3
	KDDI	2,928	66.8	45.8	46.4	9.0	9.2	5.3	5.6	14.1	14.4	5.7	5.5	15.6	15.8
	Softbank	9,940	98.6	83.8	84.6	11.6	12.0	9.9	6.6	25.0	25.0	9.9	9.7	22.0	13.1
중국	China Mobile	75.7	197.3	110.7	113.9	18.0	18.1	17.0	17.3	40.9	42.2	3.2	3.1	11.7	11.3
	China Unicom	9.2	36.0	41.7	43.8	1.4	2.4	1.2	2.1	12.8	13.7	2.9	2.7	2.6	4.2
	China Telecom	4.0	40.9	56.0	58.3	4.3	4.6	3.0	3.2	15.4	16.0	3.3	3.1	6.1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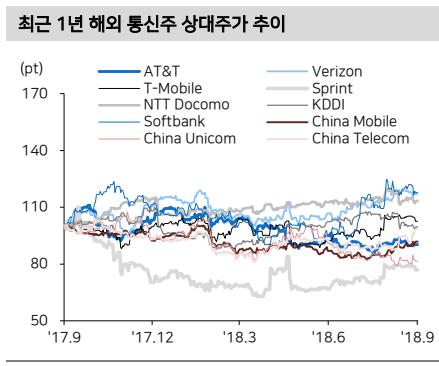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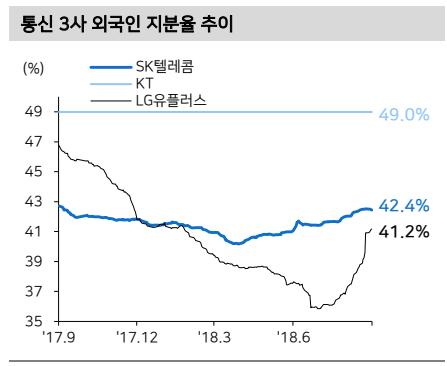
주요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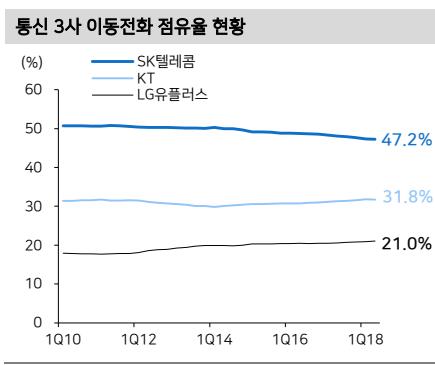
자료: WiseF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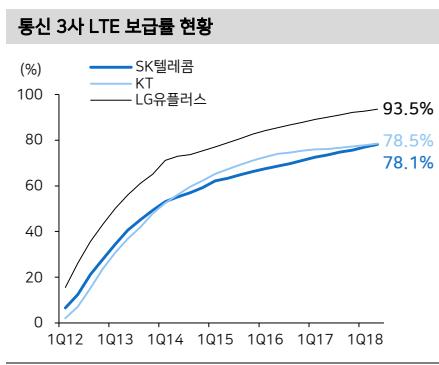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자료: WiseF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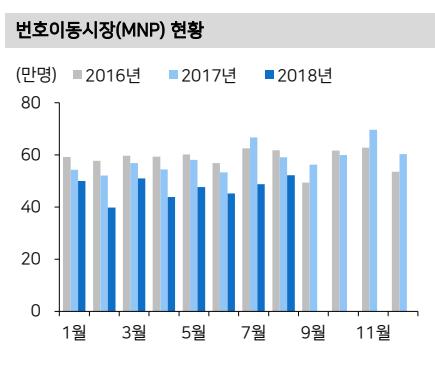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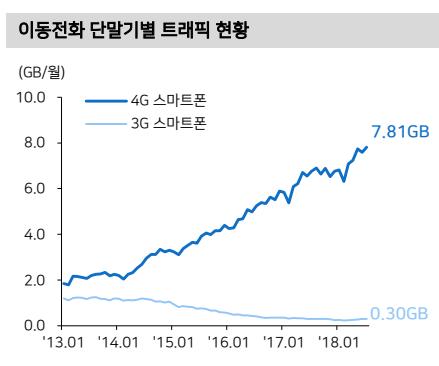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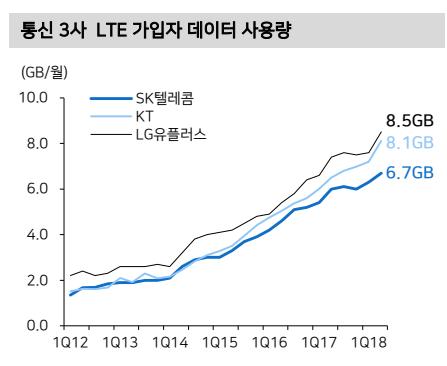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각 사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9월 10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9월 10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정지수)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